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김한웅  
(우 463-0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031)707-5722~4 FAX (031)707-5725  
기획편집 : 민자미디어 ☎ (02)2263-3598

제6권 제11호 통권65호



## HACCP 적용 반드시 마무리 돼야

농림부가 HACCP의 적용확대 추진을 위해 군납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육은 HACCP 적용사업장에서 생산된 것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농림부가 HACCP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나선데 대해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계육업계의 경우 HACCP의 도입은 시대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남들보다 앞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닭고기 판매가 국내 시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대명제를 목적에 두고 어느 축종 보다도 솔선수범, HACCP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러한 것은 관련업계가 인정해온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HACCP의 도입이 단순한 질차상의 도입이 아닌 많은 자금과 피나는 노력이 동반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대상 업체로서는 많은 고민을 있어 왔다.

더욱이 HACCP 도입이 가져오게 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넉넉지 않은 업체의 경우 안팎으로 부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해 신중한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 발생할 상실감은 둘째 치더라도 HACCP 도입을 조기에 실시한 업체의 경우 생산비(감가상각비, 인건비 등)가 급격히 상승, 타 업체 또는 유통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이중고를 겪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장 현실이익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 수익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명분조차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경영주는 물론이고 회사 전체로서도 큰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HACCP 적용업체나 내년에 적용대상이 되는 업체들 모두 다 한 목소리도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확실한 우대조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 다행히도 농림부가 이를 적극 수용, 앞으로 군납 및 학교급식에 사용

되는 식육은 HACCP 적용사업장에서 생산된 식육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널리 환영받을 만한 조치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식육중 미생물 검사를 단계적으로 강화, 모니터링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위반한 도축(도계)장에 대해서는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월별로 취합하여 언론에 공개키로 한 것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HACCP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HACCP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의 규정을 넘어 더욱 엄격한 위생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명확한 우대조치의 마련과 정부의 약속대로 2003년까지 확실하게 모든 업체에 HACCP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몇차례 있었던 것과 같이 무분별한 일부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龍頭蛇尾)격으로 흐지부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HACCP 적용 확대 추진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포장유통의 의무화다. 포장유통의 의무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HACCP의 적용은 도계장에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HACCP적용과 동시에 포장유통의무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도계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졌다해도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은 처음부터 HACCP의 도입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육에 HACCP 도입은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위해요소로부터 청정화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당장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상황들이 부합될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계육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